

여수시,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사업 ‘호응’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 어르신 560명 지난해 12월부터 건강관리 코로나19 시대 접촉 최소화...주기적 모니터링·필요시 직접 방문

여수시가 지난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AI·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를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 중 허약·만성질환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560명이 참여해 지난해 12월부터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사업 초기에 대상자 사전 평가와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코로나19 시대에 접촉을 최소화하여 스마트 폰과 AI(인공지능)블루투

스 장비(손목 활동량계, 체중량계 등)를 활용해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강측정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건강정보를 제공해 일상 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 시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 5월까지 6개월간의 사업이 끝나면 사후평가 및 만족도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구의 고령화,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보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광주 서구치매안심센터, 체계적 ‘3-STEP 조기 검진’ 서비스 제공



구를 사용,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선별 검사에서 ‘정상’일 경우 주기적 검사 및 치매예방교실 참여 연계 등을 돕는다. ‘인지 저하’로 나타날 경우에는 인지강화교실 참여를 연계하고 ‘치매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치매진단검사는 자세한 인지 기능 파악을 위한 신경심리검사(CEARD-K),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 척도 검사를 시행한다. 협력의사 진료를 통한 치매 임상 평가도 이뤄진다.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되면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인지강화 교실을 연계한다. ‘치매’일 경우에는 협약병원에서 뇌영상 촬영, 혈액성분 검사 등을 진행, ‘치매감별검사’를 지원한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관련 물품 및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한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구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이슬기자

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만 60세 이상 지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3-STEP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 등 3단계로 이뤄지는 치매 조기 검진법이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조기 발견과 중재를 위한 주기적 검진을 통해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기억력검사(MMSE-DS)보다 변별력이 우수한 한국형 인지선별검사(CIST) 도

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시행

연간 20~30만 원 지원...장애인 이동권 개선 노력



광양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 원 이내, 일반장애인은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리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3종이며, 보장구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장 수리도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희망하는 협약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기관은 광양장애인복지관(☎061-761-4438), 중마장애인복지관(☎061-795-0420), (사)전남척수장애인협회 광양지회(☎061-761-7440) 총 3개소이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진도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호응’

집 청소·정리법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진도군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기존의

노인 돌봄 6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개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군 지난번은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 등 19명이 활동 중

에 있으며, 안부 확인을 비롯 건강·영양교육,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집 청소와 정리법을 도와주는 정리의 달인 서비스와 손과 얼굴 마사지, 손톱 정리 등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김모 할아버지(87세)는 “4년전 할머니와 사별한 후 부엌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릇과 가전제품 등 어떻게 정리하는지 몰라 지켜

보며 답답했는데 자식보다 더 살갑게 찾아와 주고 전화해 주는 선생님들이 집을 싹 다 정리해 주고 어떻게 청소하는지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